

파견교환학생 결과보고서

성명		전북대 소속 (학과명)	
해외 파견대학	중국 / 충칭우전대학교	해외파견대학 전공	어학(중국어)
파견기간	<input checked="" type="checkbox"/> 1학기 <input type="checkbox"/> 1년		
학기 시작일	2025/09/15	학기 종료일	2026/01/13
출국일	2025/09/04	귀국일	2026/01/31

1. 수업 및 교내외 활동

수업	이수과목	1학기	
		2학기	综合汉语2 初级读写2 初级听力2 初级口语2
	수업방식	PPT 및 교재 위주 수업, 참여형 수업	
	시험방법	한 학기동안 배운 단어와 문법을 위주로 hsk 같은 시험	
	수강신청 시 유의사항	별도의 수강신청 없이 레벨테스트 후 반 배정과 시간표가 나온다. *참고 : 수업을 들어본 후 반을 옮길 수 있다.	
	그 외 활동 (해당되는 경우 작성)	동아리	
문화프로그램			
기타			
교내편의시설	학식당, 마트, 세탁소, 인쇄소, 택배 시설, 통신사 등		

2. 귀국 준비

기숙사/숙소 (기숙사참고사항, 퇴 실 절차, 납부방법 및 시기)	-수도 및 전기세 : 정해진 특정 날짜는 없으며, 기숙사 건물별로도 차이가 존재한다. 기숙사 관리인의 안내에 따라 위챗페이 혹은 알리페이로 납부한다.
각종 해지 사항 (보험, 은행 등)	-통신사 : 교내에 위치한 통신사를 통해 해지
기타참고사항	

3. 소감문 (1페이지로 작성, 맑은 고딕, 10포인트, 왼쪽 정렬)

<p>파견교에 대한 정보 및 숙소에 대한 정보 (캠퍼스, 주변환경 등)</p>	<p>-파견교 : 캠퍼스 자체는 비교적 넓은 규모이다. 교문 출입 시 얼굴 인식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으나 유학생의 경우 초반에 얼굴 등록이 원활하지 않아 출입에 불편을 겪을 수 있다. 또한 배달 주문이나 택시 호출 시 차량이 캠퍼스 내부로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이 간혹 발생한다.</p> <p>-기숙사 : 처음 배정받은 건물은 두 명이 함께 사용하지만 각자 개인 방이 따로 있고 화장실, 주방, 베란다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조이다. 그러나 해당 기숙사는 전기 공급이 원활하지 않고, 안전에 관한 불편 사항이 많아 기숙사 변경을 신청하였다. 이후 옮긴 구 유학생 기숙사는 비교적 시설이 좋고 넓은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 중 여러 차례 수리 기사를 불러야 할 정도로 시설 관리가 완벽하지는 않았다. 추가로 현지 수질 문제로 인해 샤워기 필터와 세면대 필터는 충분한 양을 준비해 가는 것을 추천한다.</p>
<p>날씨, 숙소, 식사, 비용(물가) 등에 대한 정보</p>	<p>-날씨 : 9월 초까지도 35도를 넘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덥고, 전반적으로 연중 기온이 높은 편이다. 12월 말 기준 평균 기온은 약 10도 내외로 한국의 겨울에 비해서는 따뜻한 편이다.</p> <p>-물가 : 전반적인 물가는 한국과 비교했을 때 매우 저렴한 편이다. 학교 주변 식당이나 학식당을 이용할 경우 식비 부담이 크지 않다. 또한 호텔과 같은 경우에도 나쁘지 않은 컨디션임에도 1박 기준 4~5만 원 이하로 이용 가능한 경우가 많다. 생필품을 포함한 대부분의 물품은 타오바오를 통해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p>
<p>의료, 은행, 교통, 통신 등에 대한 정보</p>	<p>-의료 : 학기 초 의료보험에 가입하나 보험 적용 과정이 까다롭고 진료비 및 약값이 매우 비싼 편이다. 보험료 환급을 위해 헬퍼에게 은행 계좌를 빌릴 수 있는지 사전에 합의한 후 해당 내용을 교무실에 전달해야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p> <p>-은행 : 은행 계좌 개설을 돕는다는 위챗 단체방이 개설되었으나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는 어려웠다. 결국 개인적으로 은행을 방문하여 계좌를 개설하였다.</p> <p>-교통 : 택시 요금이 저렴하여 대부분의 이동 시 택시를 주로 이용하였다. 버스 요금은 2위안 정도로 매우 저렴해 절약을 원한다면 버스 이용을 추천한다.</p> <p>-통신 : 학기 초 헬퍼의 도움으로 교내 통신사에서 번호를 개통하고 중국 유심을 발급받는다. 교내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는 있으나 연결 상태가 좋지 않아 데이터 사용 비중이 높다.</p>
<p>사전 준비와 현지 생활과의 차이, 문화충격 등</p>	<p>해당 사항 없음.</p>
<p>파견교 국제교류부 (진행되는 프로그램, 도움받았던 내용 등)</p>	<p>해당 사항 없음.</p>
<p>파견교환학생 관련 건의사항 또는 후배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p>	<p>교환학생 경험은 다양한 것을 배우고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기회이므로 추천하고 싶다. '충칭'은 아직 관광지로 완전히 상업화되지 않아 현실적인 중국의 모습도 볼 수 있으며 도시 규모가 매우 크기에 관광할 곳도 많아 생활하기에 좋은 도시라고 생각한다. 다만 파견교에 대해서는 추천이 어렵다. 수업 방식이나 교수진에 대한 불만은 없으나 학교 행정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낯선 타국에서의 생활에서는 사소한 문제도 크게 느껴질 수 있는데 유학생을 담당하는 교무실 담당자의 태도는 불친절하고 일관되지 않았으며, 사전에 공지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학생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请假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승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동일한 사유임에도 허가를 받은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이 존재하였다. 이러한 기준의 불명확성과 사전 안내 부족에도 그 책임은 학생이 부담하여야 한다.</p>



파견교환학생 결과보고서

성명		전북대 소속 (학과명)	
해외 파견대학	중국 / 충칭우전대학교	해외파견대학 전공	어학(중국어)
파견기간	<input checked="" type="checkbox"/> 1학기 <input type="checkbox"/> 1년		
학기 시작일	2025/09/15	학기 종료일	2026/01/13
출국일	2025/09/04	귀국일	2026/01/28

1. 수업 및 교내외 활동

수업	이수과목	1학기	
		2학기	어학(중국어) : 종합/독해/듣기/말하기
	수업방식	교재의 과정에 따라 PPT를 참고하여 설명 및 문제 풀이	
	시험방법	한 학기 동안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과목별로 HSK 유형으로 출제	
	수강신청 시 유의사항	학생의 개별 수강신청이 아닌, 개별 레벨테스트 결과에 따른 일괄신청을 방식으로 함	
그 외 활동 (해당되는 경우 작성)	동아리		
	문화프로그램		
	기타		
교내편의시설	학식당, 대형마트, 세탁소, 인쇄소, 통신사		

2. 귀국 준비

기숙사/숙소 (기숙사 참고사항, 퇴실 절차, 납부 방법 및 시기)	- 수도 및 전기세 납부 방법 및 시기 : 각 기숙사별로 관리인이 수도 및 전기 사용량을 확인 후 위챗으로 호실별로 납부 금액 및 일자를 안내함 - 퇴실 절차 : 기숙사 관리인을 통해 퇴실 여부를 밝히고, 서명과 호실 열쇠를 반납
각종 해지 사항 (보험, 은행 등)	- 통신사 : 교내 통신사에 방문해 요금제 해지
기타참고사항	- 교외 근처 우체국이 있으므로, 직접 방문하여 퇴실 전 미리 짐을 택배로 보낼 수 있음



3. 소감문 (1페이지로 작성, 맑은 고딕, 10포인트, 왼쪽 정렬)

<p>파견교에 대한 정보 및 숙소에 대한 정보 (캠퍼스, 주변환경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숙사 신청 : 기숙사 입주 시 유학생들은 전용 기숙사를 사용하게 되고, 1인실로 선택할 경우 (신)유학생 기숙사인 31-32동에 배정되는데, 호실 안에 방이 두 개일 뿐, 1인실이 아님. 또한, 기숙사 외부와 내부 모두 노화가 심함. 엘리베이터가 없고 강의실과도 거리가 멀어 (구)유학생 기숙사보다 조건이 안 좋음. (구)유학생 기숙사의 경우 기숙사 내부에 엘리베이터가 있고, 강의실과 도보로 5분 정도의 거리라 기숙사 신청 시 2인실 선택을 추천함. - 캠퍼스 : 전북대와 비교했을 때 최소 2배 이상 면적이 넓고, 학교로 통하는 문 또한 여러 개임. 전북대와 마찬가지로 구정문 근처에 식당이 많음.
<p>날씨, 숙소, 식사, 비용(물가) 등에 대한 정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날씨 : 중국 남부에 위치하고 있어 여름이 길고, 최대 기온이 40도임. 10월 이후부터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나, 한국과 다르게 평균 기온 10도를 유지함. - 비용(물가) : 최근 환율이 오르긴 했으나, 한국에 비해 저렴한 편이고, 중국 4대 직할시 중 한 곳임에도 중국 내에서 물가가 저렴한 편임. 특히 호텔 등 숙박비가 저렴함. 식비의 경우, 식당에 따라 편차가 심함. 특히 한식당은 국내 식당에서 식사했을 때의 비용과 크게 다를 바 없음.
<p>의료, 은행, 교통, 통신 등에 대한 정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 : 알려지성 질환으로 인해 충칭의과대학 부속 1차 병원 피부과에 방문한 경험이 있는데, 학교를 통해 발급한 보험으로 진료 시 보험 적용 여부를 확인하려고 했으나, 접수처에서 보험 적용을 거절함. 병원을 방문해야 할 일이 있다면, 입학 시 배정받는 헬퍼에게 연락 후 동행할 것을 추천함. 참고로, 보험 미적용 시 진료 및 약 처방 비용은 한화로 약 8만원이었음. - 은행 : 입학 전 국내에서 하나은행의 트래블로그 혹은 길한통 계좌 개설 및 카드 발급 시 굳이 중국에서 계좌 개설 및 카드 발급의 필요성을 못느낌.
<p>사전 준비와 현지 생활과의 차이, 문화충격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 생활에서의 문화충격 : 중국 대학생들은 한국 고등학생들과 하루일과가 비슷함. 한국 대학생들은 대부분 오후 6시 이후에 강의를 듣는 경우가 없는데, 중국 대학생들은 아침부터 밤까지 강의를 듣는 경우가 많음. 강의 시작과 종료 시 종소리가 울리는 것 또한 한국 고등학교와 비슷한데, 밤 10시에도 강의 종료를 알리는 종소리가 울림.
<p>파견교 국제교류부 (진행되는 프로그램, 도움받았던 내용 등)</p>	<p>해당되는 사항 없음.</p>
<p>파견교환학생 관련 건의사항 또는 후배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칭은 중국 4대 직할시 중 한 곳이며, 중국 내에서도 1위로 인구가 많은 만큼 대륙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도시임. 그에 비해 물가가 저렴한 편이라 가볍게 여행 다니기에도 좋았음. 중국 내 도시에서의 교환학생 생활을 누리고 싶다면 충칭을 추천하고 싶음. 다만, 이 파견교는 추천하지 않음. 안전사항을 포함한 여러 정보를 제공해야 하나, 이 학교의 경우 기본 안전사항을 제외한 출결 안내, 강의편람 등을 제공하지 않았고, 이에 어긋날 시 불친절한 태도로 책임만 물음. 국가별로 교환학생들에게 헬퍼를 배치하지만, 한국인 담당 헬퍼 또한 소극적인 태도를 보임. 무엇보다 교환학생들과 가장 적극적인 소통이 이뤄져야 할 교무실이 소극적이고, 불친절한 태도로 대하는 것이 가장 큰 불만으로 작용함.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교환학생 기간 중 외할머니께서 건강이 안 좋으셔서 한국에 다녀와야 했고, 이를 가장 먼저 교무실에 알렸으나, 국제교류부로 인계 외엔 별다른 안내가 없었음에도 다녀온 후에 출결과 관련하여 불친절한 태도로 책임을 묻는 등 불합리한 상황을 겪음. 파견교로서 교환학생에 대한 책임이 부족한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았기에, 비추천함.